

Energy Ministers' Meeting / Réunion des ministres de l'Énergie

G8 에너지장관회의 성명서

이 자료는 지난 5. 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G8 에너지장관회의' 성명서(Statement)를 번역하여 전재한 것이다. 이번 'G8 에너지장관회의'는 오는 6. 26-27일 캐나다 Kananaskis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 대비한 각국 에너지담당 각료들의 사전 준비회의 성격으로 개최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세계의 에너지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브라함 에너지장관이 제안하여 열리게 되었다.

'2002 G8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성장 지원,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 등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가 'G8 정상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주

1. G8에너지장관들은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2002. 5. 3 미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회동하였다.

2. G8에너지장관들은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세계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의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접근이 발전을 위한 요체이다.

3. G8에너지장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유연한 비상시 대응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G8에너지장관들은 시장원리의 적용 확대, 에너지공급의 다원화, 에너지이용의 효율 향상, 자료 및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을 높여 유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안보를 향상시키

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지지한다.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대화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시장 정보의 이용가능성, 품질, 호환성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슈가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8차 국제에너지포럼'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4. G8에너지장관들은 석유시장 붕괴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G8에너지장관들은 석유 순수입국들의 비상시 석유비축 확보와 석유 위기시 이용 조정 의무의 중요성에 합의했다. G8에너지장관들은 급격한 에너지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이 석유공급 위기시 자국의 경제회복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석유비축을 하는 것이 G8국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있다. G8에너지장관들은 효과적인 추진방

법에 대해서 G8국가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할 것이다.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 인프라 붕괴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를 다양하게 연계시키고 있는 석유, 가스 및 전력 공급망의 가치 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설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5.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환경보호,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지지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 각국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자국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통하여 변화하는 에너지공급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G8국가들은 최상의 안전 및 폐기물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원자력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각국의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서 온실가스 원단위를 낮춤으로써 기후변화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G8에너지장관들은 2001년 Genoa 'G8경제정상회의'에서 인식한 것처럼 에너지공급의 다양화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다.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 및 에너지서비스 부문의 경쟁시장과 교역자유화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안보 및 환경보호를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6. G8에너지장관들은 다양한 에너지기술 옵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실증 및 보급이 에너지믹스의 다양화와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통한 환경영향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G8 국가들은 에너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기존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청정에너지기술 분야를 개발할 것이다. G8국가들은 기술정보 교환을 개선하

기 위해 회원국간 및 선·개도국간 정보를 교환하고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7. 청정하며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수용가능한 에너지가 모두에게 이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G8에너지장관들은 2002. 8월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나 기타 회의에서 에너지에 대한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한다.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효율 향상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등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도입 촉진을 계속할 것이다.

8. 에너지 서비스의 수요증가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개발 생산 및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니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시장을 개방하여 투명한 기업관행과 안정적인 규제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G8에너지 장관들은 개발원조프로그램 작성시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은 민간투자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으며, 민간투자는 건전한 정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접근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률, 정책 및 규제관행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9. G8에너지장관들은 에너지기술 분야 및 개도국과의 협력 등 논의했던 일부 이슈에 대해 에너지담당 공무원들에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G8에너지장관들은 각국 에너지담당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접촉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를 실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료정리 : 에너지협의회 이성룡 차장)